



## 태 국

# 미·태 자유무역협정, 몇 가지 장애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될 듯

최근 ASEAN<sup>1)</sup> 역내·외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05년부터 ASEAN 국가들과 7,445개의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철폐 작업을 시작하였고, 일본도 2003년 말부터 일본·ASEAN 정상회의를 추진하는 등 ASEAN 주요국과 FTA협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또한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한 데 이어 올해에는 태국과의 FTA 협상을 진

행하고 있다.

### 미국과 태국의 FTA 추진동기

아·태 지역에서는 호주, 싱가포르에 이어 태국과 세 번째 FTA 추진에 나선 미국은 지난 1월부터 태국 치앙마이에서 FTA 체결을 위한 제6차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비교하여 태국의 FTA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2005년 말 기준으

〈표 1〉

태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억 달러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국 내 총 생 산	1,429	1,617	1,835
민 간 소 비	817	917	1,038
정 부 지 출	153	179	228
총 고 정 투 자	343	419	533
수 출	937	1,141	1,300
수 입	84	1,065	1,307

자료: EIU.

1) ASEAN회원국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10개국임.

〈표 2〉 미국의 대 태국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수 출	4,859	5,843	6,363
수 입	14,799	1,5181	17,577
상 품 수 지	-9,940	-9,339	-11,214

자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2005).

로 태국이 6,500만 명의 인구규모, 1,835억 달러의 GDP규모, 2,607억 달러에 달하는 교역규모를 갖춘 ASEAN의 핵심국가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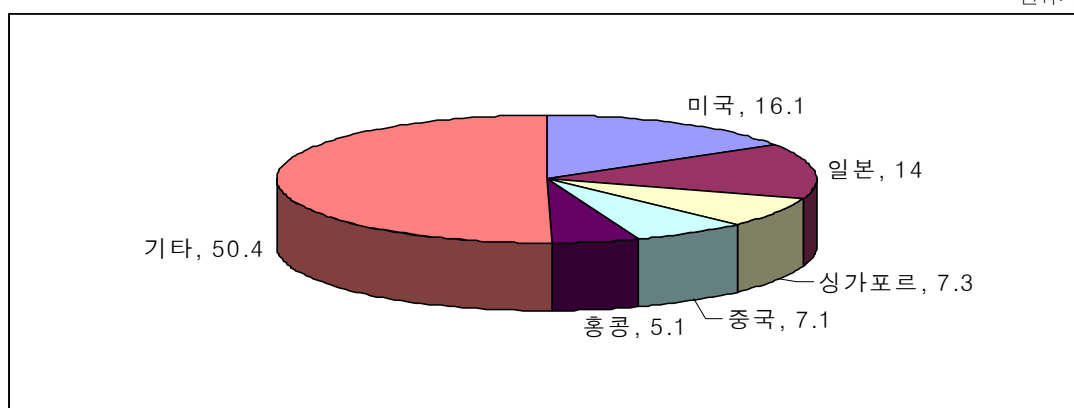
미국은 태국과의 FTA를 통해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까지 팽창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외교적인 효과까지 노리고 있다. 최근 경제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지역적 이점을 활용하여 동남아 주요국들과 경제교류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지역 경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런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도 서둘러 아시아 주요

교역국들과 FTA 추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태국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제의 수출의존도<sup>2)</sup>가 매우 큰 태국에게 미국은 최대수출국이자, 3번째 수입국이기 때문이다. 태국은 미국과의 FTA가 수출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뿐 아니라, 저임금에 기반을 둔 수출에서 선진서비스로 산업구조가 보다 고도화된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림 1〉 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2004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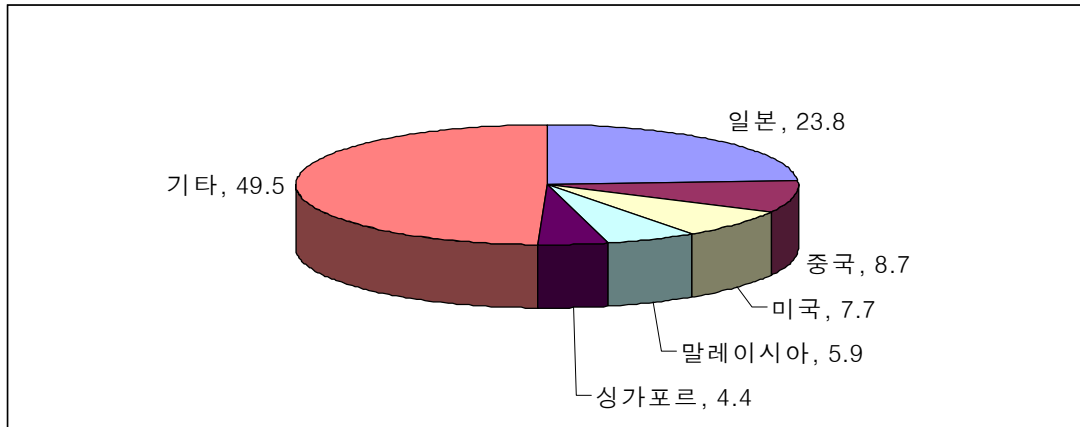
자료: EIU.

2) GDP 대비 수출 비율로 약 71%에 달함.

<그림 2>

태국의 주요 수입대상국(2004년 기준)

단위: %



자료: EIU.

### 미·태 FTA 장애요인

미국과 태국이 추구하는 FTA협정은 일반적인 장단점 외에도 다음의 세 가지 문제가 민감한 사안으로 남아 있다.

#### ① 미국의 트럭 수입관세 철폐 문제

태국은 연간 50만대 이상의 소형트럭(pickup-truck)을 생산하는 세계 2위의 생산국이나 현재 미국으로의 수출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sup>3)</sup> 미국 자동차노동조합(United Auto Workers Union: UAW)은 FTA가 체결되면, 태국 트럭의 미국시장 진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향후 6년간 34,000명의 미국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태국이 수출하는 대부분의 트럭이 한국과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태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는 점에서, UAW는 태국 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는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 트럭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소형트럭 산업은 현재 25%의 비교적 높은 관세보호를 받으며 8만 명이 종사하고 있어, 미·태 FTA협정은 향후 미국 트럭산업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② 태국의 금융시장 개방 문제

서비스분야가 국민총생산의 46.4%를 차지<sup>4)</sup>하고 있는 태국은 제조업에서는 저렴한 노동력 덕분에 미국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교육, 금융, 보험 등 거의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에 대해 비교열위에 놓여있다. 미국은 태국의 보험시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100% 개방을 요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미·태

3) 미국상무부의 보고에 따르면, 태국의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이 2004년에는 60억 달러, 2005에는 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GDP 비중이 건설업은 3.1%, 제조업은 35.2%임.

FTA는 태국의 서비스업, 특히 금융서비스업에 큰 경제적 충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③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태국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FTA에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는 의약품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이다. 질병 발병률이 높은 태국으로서 의약품 관련 특허권 보호규정을 수용하기에는 부담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미국의 의약품특허권 보호와 의약품 데이터에 대한 보호 요구는 WTO의 규정보다 더 강한 것으로, 태국 의약품의 가격상승과 태국 의약산업의 경기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

### 양국간 FTA는 거스르기 힘든 대세

앞에서 살펴본 문제들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태 FTA 체결은 거스르기 힘든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먼저 미국의 트럭산업에 대한 관세 문제는 자유무역을 주창해 온 미국이 끝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힘들 것이다. 자유무역의 추세를 거스르며 트럭산업에 대한 보호만 유독 강조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태국도 이미 금융시장의 일부가 미국에 개방된 상황이어서 FTA 타결 이후 미국 자본이 금융서비스 분야로 대거 유입

되더라도 이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거부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태국 금융기관들은 선진 금융서비스를 접하는 기회로 활용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의료산업 특허권 강화에 대한 태국의 부담이 크지만, 이 또한 FTA 체결에 따른 제조업분야를 비롯한 타 산업이 얻게 될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면 국가전체로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대부분의 자유무역국가들이 겪게 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FTA 체결에 따라 산업간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다. 이번 협상도 산업 간에 이러한 부침관계가 명확한 만큼 미국과 태국 모두 무역에 따른 자원의 재배분 문제, 산업별 양극화문제, 소득 재분배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6차 협상까지 진행된 미·태 FTA 협상은 최근 태국의 정치 혼란을 이유로 4월 태국 총선 이후로 연기되었다. 탁신 총리는 주식처분 관련 스캔들, 태국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제실적 등으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지만, 미국과 태국 모두 FTA의 본질적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FTA 협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 현 규】